

# 강기정 11억...3000만원 증가 김영록 26억...1억9000만원 늘어

### 광주지역 공직자 재산신고

시의원 중 심창욱 116억 최고  
김나운 1000만원 신고 최저  
문인 북구청장 20억대로 1위

강기정 광주시장이 11억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강 시장은 11억67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3100만원 늘었다.

광주 북구의 아파트와 서울의 다가구주택·오피스텔 전세권 등 건물(3억5200만원), 예금(8억6100만원) 등을 신고했다.

고광만 행정부시장은 15억4400만원,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49억2000만원

의 재산을 보유했다.

고 부시장은 서울의 아파트와 다세대주택(12억5100만원), 이 부시장은 상당주식(32억7900만원) 등이 있었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25억6600만원을, 자치경찰위원회 안진 위원장과 전준호 사무국장은 각각 12억2700만원, 16억1200만원을 신고했다.

구청장들은 문인 북구청장이 예금(10억5600만원) 등 20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임택 동구청장 3억7800만원, 김이강 서구청장 4억7600만원, 김병내 남구청장 8억4100만원, 박병규 광산구청장 4억4800만원을 신고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신 의장이 1000만원 줄어든 2억5600만원의 재산이 있었다.

신 의장은 부동산 매입에 따른 채무 1억4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임택 동구청장 3억7800만원, 김이강 서구청장 4억7600만원, 김병내 남구청장 8억4100만원, 박병규 광산구청장 4억4800만원을 신고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신 의장이 1000만원 줄어든 2억5600만원의 재산이 있었다.

신 의장은 부동산 매입에 따른 채무 1억4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배우자의 비상장주식 가액이 64억5900만원이나 감소했다.

심 의원은 "보유 중인 부동산 개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감소해 올해 재산 신고액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반면 김나운 의원이 채무(1억5200만원)를 포함해 1200만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적었다.

박수기(13억3200만원)·박희을(11억3900만원)·서용규(10억4600만원)·심철의(11억1100만원)·안평환(10억9000만원)·임미라(42억2000만원)·홍기월(12억2800만원) 의원이 10억원대였다.

강수훈 의원 3억4700만원, 김용임 의원 8억4400만원, 명진 의원 7억3800만원, 박미정 의원 1억3000만원, 박필승 의원 2억4500만원, 서민석 의원 7억1300만원, 정무장 의원 4억3700만원, 이기순 의원 5억7800만원, 이병노 의원 2억9000만원, 정다은 의원 6억7000만원, 조석호 의원 5억2100만원, 채은지 의원 4억6600만원, 최지현 의원 3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전남지역 공직자 재산신고

도의원 중 이동현 134억 최다  
기초단체장 명현관 77억 1위  
우승희, 9500만원 가장 적어

김영록 전남지사가 26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동현 전남도의원은 134억9000만원을 신고해 도의원 중 최고의 재력가로 뽑혔다.

26일 관보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신고한 24억3000만원보다 1억9000만원 늘어난 26억2000만원을 신고했다.

김 지사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억여원 늘는 등 전체 재산이 증가했다.

명창환 행정부시장은 지난해보다 6000

만원 늘어난 8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박창환 경제부시장은 지난해보다 1700만원 늘어난 14억1000만원을 신고했다.

정순관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장은 38억4000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신고액보다 3억4000만원 늘었는데, 최초 신고액에서 일부 누락된 채권을 신고해 재산이 늘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지난해보다 2억8000만원 줄어든 16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김 의장은 금융 거래 등으로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이동현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재력가로 뽑혔다.

이 의원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38억원이 늘어나 고위공직자 중 재산 증가 상위자에 포함됐다.

지난해 89억원을 신고한 이 의원은 가족 명의의 법인 주식 35억8000만원이 늘어나 재산이 증가했다.

3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김경이(46억원), 최무경(43억원), 강문

성(38억원) 의원 등 3명이었다.

22개 시장 군수 가운데 명현관 해남군수가 77억원을 신고해 재산신고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이상의 함평군수가 67억8000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윤병태 나주시장(24억원), 김철우 보성군수(23억8000만원) 등은 20억원 이상을 신고했다.

10억원 이상 신고한 지자체장은 노관구 순천시장(19억원), 정인화 광양시장(17억8000만원), 김순호 구례군수(10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정기명 여수시장(8억9000만원), 강진원 강진군수(8억4000만원), 공영만 고흥군수(7억4000만원), 김성 장흥군수(7억원), 신우철 완도군수(4억원), 구복규 화순군수(3억9000만원), 김희수 진도군수(3억6000만원) 등이 3억원 이상을 신고했다.

김산 무안군수(1억9000만원), 김한중 장성군수(1억8000만원), 우승희 영암군수(9500만원)는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한국여성벤처협회 광주전남지회 회장 이·취임식 26일 광주 동구 라마다프라자 총정호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벤처협회 광주전남지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고수경 신인 회장 및 내빈들이 축하 떡케익을 자르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이재명 무죄 사필귀정”

김 지사, 서울고법 찾아가 이 대표와 악수 ‘눈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이재명 무죄는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강 시장은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했던 검찰은 이번에는 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비상계엄과 내란을 종식하는 것은 윤석열의 탄핵 파면뿐”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도 이날 이 대표의 판결 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엄격 해석의 원칙’에 충실한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했던 검찰은 이번에는 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비상계엄과 내란을 종식하는 것은 윤석열의 탄핵 파면뿐”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도 이날 이 대표의 판결 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엄격 해석의 원칙’에 충실한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 이정선 광주교육감 15억원...1억원 증가 김대중 전남교육감 -1억6000만원 신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예금과 보험 자산 증가로 1억원가량이 늘었고,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의 재산은 사인 간 채무가 줄면서 마이너스 1억원대를 기록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종전가액보다 1억9000만원이 늘어난 15억8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예금이 5000만원 증가했고, 일부 상황에 따라 금융채무가 2억1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줄었다. 토지(4억5000만원)·건물(3억1000만원) 등은 종전 신고액과 큰 차이가 없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2억8900여만원이 늘어 -1억6000여만원을 재산을 신고했다. 주요 증액 원인으로서는 본인 근로소득 1억1000만원, 배우자 연금소득 4500만원, 산내 사업소득 9500만원, 전남 곡성 소재 재산매각 대금 7000만원 등이었다.

본인의 사인 간 채무도 9억7100여만원에서 7억3100여만원으로 감소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 광주도시공사, 주거복지사 양성 2분기부터 현장실습 기관 지정

광주도시공사가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광주·전남 최초로 주거복지사 현장실습기관으로 지정돼 2분기부터 현장실습 지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주거복지사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다. 자격은 (사)한국주거학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으로,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이 필수과정이다. 공사는 실습생들에게 실제 현장에서 주거복지 업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내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 실습기관 운영을 통해 그동안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던 실습생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 내에서 체계적인 주거복지 교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김태균 도의회 의장, 이순신 대교 국도 승격 건의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2차 임사회 참석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지난 25일 김해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2차 임사회에 참석해 이순신 대교 지정국도 승격을 건의했다.

이번 임사회에는 김태균 의장 등 12개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해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의 공정성 확보 건의 등 지역 현안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김태균 의장은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광양 태인부터 여수 월내 구간을 지정국도로 승격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여수와 광양국가산단 일대지 진입 도로는 양 단기간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및 석유화학,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산단 대부분의 세입이 국세로 징수되는 등 실질적 수혜는 국가가 누리는 반면, 도로유지 관리비는 2024년 현재까지 약 515억 원이 지출됐고, 올해부터는 연간 약 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가 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태균 의장은 “이순신대교의 체계적 유지관리와 지자체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국도 59호선 기점을 광양 태인에서 여수 상암으로 즉시 연장하고, 이순신대교를 지정국도로 승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이번 임사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총 26건의 안건이 가결됐으며, 협의회 차원에서 국회와 소관 부처에 건의하기로 결정됐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사진 오른쪽 최상단)이 지난 25일 김해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2차 임사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광주·전남 국회의원 72.2% 재산 늘었다

전체 299명 중 162명 1억 이상 ↑  
지난해보다 준 지역구의원 5명

지역구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부채가 많았던 정준호 의원은 지난해에도 5억4025만원이나 줄어 -11억2833만원을 신고했다.

권항엽 의원도 5억995만원이었던 재산이 지난해 2억3435만원이 줄어 2억7560만원을 신고했다.

반면 김문수 의원은 5787만원이었던 재산이 지난해 2억3130만원이 늘어 2억8917만원을 신고했다.

전국 지역구 및 비례 국회의원들(총 299명) 재산도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5000만원 미만 증가한 의원은 36명(15.6%),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3명(14.3%),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49명(64.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2명(5.2%), 10억원 이상이 1명(0.4%)이다.

재산 감소자는 68명(22.7%)으로 집계됐다.

5000만원 미만 감소한 의원은 21명(30.9%),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2명(17.6%),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9명(27.9%),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6명(8.8%), 10억원 이상이 10명(14.7%)이다.

재산 규모별로는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94명(3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8명(29.4%),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1명(17.1%), 5억원 미만 33명(11.0%), 50억원 이상이 33명(11.0%) 순이었다. 신고재산 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의원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안철수·박태흠 의원 2명이었다. 이서영 기자 solee235@